



‘준 PO 1차전 승리팀 PO 꼭 간다’

‘가을마법’ 계속 될까

첫 판 승리는 플레이오프 진출 보증수표?

삼성 라이온즈가 지난 8일 2008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PO) 1차전에서 ‘패기’의 롯데 자이언츠를 12-3으로 제압하고 1차전 승리를 거두면서 ‘징크스’ 재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 초반 롯데 선발 송승준을 무너트리며 19개의 안타로 1차전을 쓸어담은 삼성은 준PO 8부 능선을 넘는 분위기다. 이날 삼성이 챙긴 1승은 ‘승리’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선다.

역대 치러진 17번의 준PO에서 1차전 승리팀이 100%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면서, ‘1차전 승리=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공식이 있다. 삼성은 승리공식을 위한 첫 단추를 꿰맨 데다 12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이라는 여유까지 더해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신하고 있다.

‘경험이 재산’이라고 강조했던 선동열 감독의 얘기처럼 삼성은 준PO 1차전에서 ‘부산 갈매기’의 응원 공세에도 주눅들지 않고 침착하게 송승준을 공략해 나갔다. 삼성은 정규 시즌동안 3패를 헌납했던 송승준의 잠재력 포크볼을 철저히 연구해 1회부터 안타 세례를 퍼붓으며 3회 송승준을 마운드에서 끌어내렸다.

반면 거침없는 패기로 그라운드를 누비던 롯데는 ‘가을 사나이’ 배영수에게 승리를 헌납했다.



2004년 한국시리즈 4차전 10이닝 노히트 노런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배영수는 2001년부터 포스트시즌 20경기에 나서 2.03의 평균자책점으로 5승을 기록했다. 가을잔치의 풍부한 경험을 살린 배영수는 준PO 1차전에서 롯데의 막강 타선을 3실점으로 막으며 1승을 더했다.

8년 만에 가을 무대를 밟은 롯데는 홈팬들에 대한 부담감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앞선 공격으로 패배를 자초했다. 정규시즌 거침없는 질주를 하던 롯데는 단기간 경험 미숙으로 실수를 연발하면서 삼성의 ‘관록’에 무릎을 꿇었다.

삼성엔 단기간 첫 승의 기세를 모아 ‘1차전 승리=플레이오프진출’이라는 공식이 이어가겠다고 기세등등하다.

그러나 롯데에게도 희망은 있다. 지난해 3전2승제였던 준PO가 올 시즌 5전3승제로 바뀌었다. 1차전 패배의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며 선발투수가 삼성에 비해 더 탄탄한 점을 고려하면 롯데에게도 승산은 충분하다.

그리고 시즌 내내 무서운 공격으로 돌풍을 이글었던 롯데 타선이 1차전 패배를 딛고 제 자리를 찾는다면 선발이 불안한 삼성의 마운드가 흔들릴 수 있다.

승률 100%에 도전하는 삼성과 새로운 포스트시즌 공식을 세우겠다는 롯데의 대결에 가을잔치의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경주가 9일 용인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에서 열린 ‘2008 신한동해오픈 골프대회’ 첫날 경기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개 때문에 경기 마무리 못한 첫날 최경주 “안 풀리네”

KPGA 신한동해오픈

세계 정상급 스타 플레이어라 칭하고 내셔널타이를 한국오픈 우승컵을 지켜낸 한국 프로골프의 젊은 유망주들이 ‘탱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의 대회 2연패를 막아내는데

9일 경기도 용인시 레이크사이드골프장(파72·7천544야드)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 제2회 신한동해오픈 1라운드에서 상위권은 대부분 국내파 20대 선수들이 활약했다. 무명 문경준(26·클리어랜드)은 버디를 7개나 잡아내며 6언더파 66타를 뽐내며 리더보드 맨 앞줄을 점령했다.

테니스를 하다 대학 2학년 때 골프채를

잡았다는 문경준은 코치도 없이 독학으로 골퍼를 익혔지만 300야드에 육박하는 장타를 앞세워 종종 선두권에 이름을 올렸던 선수. 세계랭킹 6위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을 꺾고 한국오픈을 제패한 배상문(22·캘러웨이)과 신인왕 레이스 1위 강성훈(21·신한은행), 그리고 연우혜밴드오픈 우승자 김위중(27·삼화저축은행) 등은 5언더파 67타를 때려 우승 경쟁에 뛰어 들었다.

최경주는 버디 5개를 뽐냈지만 보기 3개를 곁들이며 2언더파 70타에 그쳐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오전 경기장에 짙은 안개가 끼어 티오프 시간이 2시간 가량 늦어지면서 상당수 선수들이 1라운드를 마치지 못해 10일 이른 아침에 잔여경기를 치른 뒤 2라운드에 나서게 됐다.

13개월에서 보기없이 6개의 버디를 쓸어담아 선두권에 오른 지난해 다승왕 강경남(24·삼화저축은행)도 1라운드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 미국 골프대표팀 합류

로이터 “코치 자격으로”

은퇴한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사진)과 코미디언 로빈 윌리엄스가 세계 최강 미국 골프대표팀에 합류한다?

내년 10월 열리는 미국과 국제연합팀 간 골프대항전 프레지던트컵 단장을 맡은 프레드 커피스가 조던과 윌리엄스를 선수단에 포함했다고 8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물론 조던과 윌리엄스가 선수가 아니라 코치 자격이나 조연자 프래지던트컵에 출전할 전망이다.

커피스는 “조던은 농구 영웅이기도 하지만 골프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다”며 “조던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골프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정신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커피스는 또 “윌리엄스는 선수들의 긴장을 풀어줄 것이다. 그가 15분 또는 20분만 시간을 내 준다면 선수들은 즐겁게 경기를 할 것”이라며 기대를 걸었다. /연합뉴스

“李, 요미우리 대역전극 주역”

日 언론 이승엽 극찬

일본 언론이 시즌 막바지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대역전극을 이끌어낸 주인공으로 이승엽(32·사진)을 일제히 지목했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산케이스포츠는 9일 이승엽의 ‘한신 킬러’ 본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지난 8일 한신전에서 2타점 2루타로 팀의 3-1 승리를 이끌었다고 전했다. 시즌 중반 한신에 최대 13경기나 뒤져있던 요미우리는 야구야구 따라붙은 끝에 동률 선두로 올라선 데 이어 한신

전 승리를 계기로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다. 2승만 더 거두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리그 우승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승엽은 경기 후 “(3회) 기회는 절대로 몰거품으로 만들지 않고 최소한 3루 주자라도 홈으로 불러 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배트를 크게 휘두르지 않고 간결하게 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이승엽이 유독 한신전에 강한 면모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승엽의 올해 한신전 타율은 0.342로 다른 팀을 상대할 때보다 훨씬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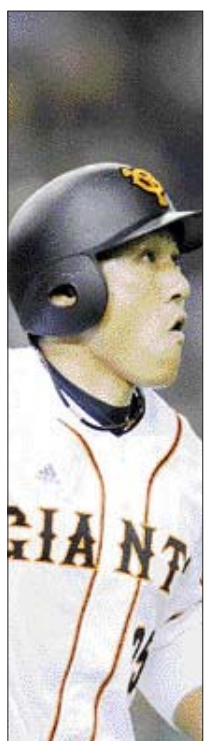
환율 상승에...

물류코스터를 타고 있는 환율에 스포츠계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스포츠 스타들이 치솟는 환율 덕분에 ‘돈방석’에 앉게 됐다. 2006년 280만 파운드에 연봉 계약약장을 찍었던 프리미에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은 1천900만하던 1파운드가 2천300원대까지 뛰어 오르면서 환율 시세로 10억원이 넘는 연봉 차이가 생겼다. 40만 유로에 프랑스리그 AS 모나코 유니폼을 입은 박주영도 유로화의 급등세로 환율 상승의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이승엽도 엔화 가치 상승의 재미를 톡톡히 볼 전망이다. 올 시즌 6억엔의 연봉을 받는 이승엽은

이승엽 연봉 44억 → 81억 효과

박지성 10억원 이상 시세 차

엔화의 상승으로 연봉 상승 효과를 누리게 됐다. 지난해 100엔당 최저 환율은 746원, 9일 현재 엔화환율은 1천357원이다. 44억 7천6백만원의 연봉이 81억 4천2백만원으로 각종 뛰어오른 셈이다. 1997년도에 ‘환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일본에서 활약하던 선동열·이중범 등이 국내 송금으로 연봉 상승 효과를 누린 적이 있다. 반면 외국 용병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프 로구단은 몰상이다. 연봉을 달러로 지급해야 하는 구단입장에서는 환율 상승이 여간 부담이 되는 게 아니다. 특히 최고 3명의 용병을 보유할 수 있는 K-리그는 환율 때문에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형편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Daesung Public Agency (대승공인중개사) and A+ Easplus Public Agency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Includes contact info, address, and various property listings.